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분석집



Ever, NEVer.

## 《목차》

1. 총평
2. 오답률 TOP 5. 상세 풀이, 왜 그런 것일까?
3. 점수별 이후 동아시아사 공부 방향

## 1. 총평

안녕하세요. eneV입니다. 먼저 6월 모의평가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고 계신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돌아온 eneV, 동아시아사 6평 분석집에서는 전체적인 총평과 오답률 TOP5의 풀이,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동아시아사의 난이도는 무난했습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수능 때 이러한 난이도였다면, 50/47/43의 등급컷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며, 수능의 퀄리티보다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평가원에서 냈기 때문에, 평가원의 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평가원의 눈은 평가원이 좋아하는 개념과 선지, 그리고 출제 방향과 유도 능력 분석 등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 모의평가의 피드백을 하실 때, 틀리거나 맞은 개수와 상관없이, 모든 선지와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원의 눈을 30% 이상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치적 총평>

1. 난이도 : 2.5 / 5 (5점만점)
2. 매력적인 지문 : 3, 9, 11, 12, 13, 14, 16, 18, 20
3. 오답률 TOP 5 : 16, 19, 17, 10, 12 (오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과목들의 출제 방식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강사 분들이 말씀하시는 트렌드에 맞춰 가야 한다는 말은 최신 스타일에 맞추라는 말입니다. 동아시아사 또한 역사 과목답게 최신 트렌드가 있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동아시아사의 트렌드는 절대 연표 난이도에 맞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엽적인 연표를 다 외우시려는 시도는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연표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을 수는 있으나, 곧 여러분들 중 몇 분은 이상한 연표나 이상한 사설 모의고사만 풀면서 안심하고 지내실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 만점이 목표이신 분들일수록 말이죠.

물론, 제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개념을 탄탄히, 개념에 핑크가 나지 않았나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만 알 것 같은 연표는 알면서, 2관 8성 조직을 모르면, 작년 수능과 같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저는 TOP5 오답률의 문제를 하나하나 세세히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혹은 맞더라도 왜 맞았는지 전부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가원의 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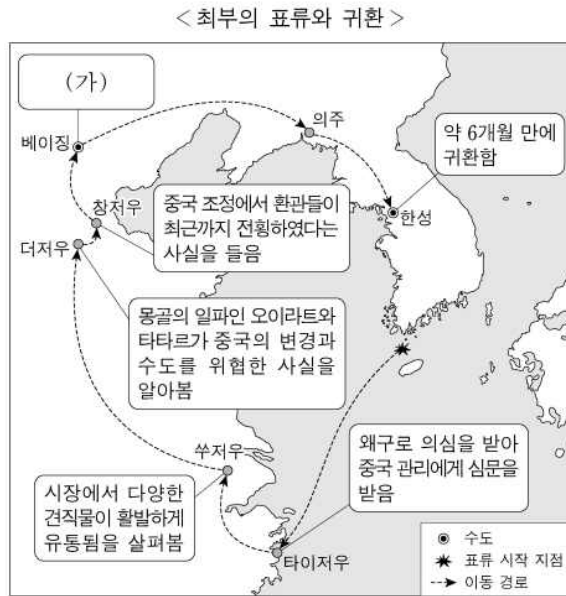
## 2. 오답률 TOP5문제 상세풀이, 왜 그런 것일까?

사람		동아시아사		선택지별 비율							문제	해설강의	인공지능 문제추천
순위	문항 번호	오답률	배점	정답	①	②	③	④	⑤				
1	16	70.0	2.00	4	9.4	15.7	28.9	30.2	15.7	<a href="#">보기 &gt;</a>	<a href="#">보기 &gt;</a>	<a href="#">보기 &gt;</a>	
2	19	69.0	2.00	1	30.8	11.3	26.4	6.9	24.5	<a href="#">보기 &gt;</a>	<a href="#">보기 &gt;</a>	<a href="#">보기 &gt;</a>	
3	17	52.0	3.00	3	13.8	23.3	48.4	10.1	4.4	<a href="#">보기 &gt;</a>	<a href="#">보기 &gt;</a>	<a href="#">보기 &gt;</a>	
4	10	49.0	3.00	2	6.3	50.9	10.7	18.9	13.2	<a href="#">보기 &gt;</a>	<a href="#">보기 &gt;</a>	<a href="#">보기 &gt;</a>	
5	12	41.0	3.00	4	6.3	19.5	9.4	59.1	5.7	<a href="#">보기 &gt;</a>	<a href="#">보기 &gt;</a>	<a href="#">보기 &gt;</a>	

이 사진은 EBS에서 제공한 동아시아사 오답률 TOP5 문제입니다.  
 1위와 2위의 오답률의 거의 비슷하고, 3위부터 갑자기 간극이 벌어집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5위의 오답률이 50%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수능에 비해서 훨씬 쉬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6평의 수험생과 수능의 수  
 험생은 실력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보여준 것은, 2점짜리 문제의 봉기(?)입니다.  
 3점이라고 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점이라고 다 쉬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문제의 배점에 휘말리지 마시고, 문제 자체를 푸시는 데  
 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금과의 강화 추진에 반대하는 장수를 만남
- ② 사고전서의 편찬에 참여하는 한족 지식인을 봄
- ③ 쩌흥다오 군대와 싸우고 돌아온 병사를 목격함
- ④ 조공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류큐 사신과 대화함
- ⑤ 화번공주를 맞이하러 온 토번 사신 일행을 구경함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 지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문 퀄리티 하나는 잘 뽑는 평가원입니다.  
 하지만, 선지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일단 문제 푸는 방법만을 설명드리자면, 사실 확실한 힌트 하나만 찾으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오이라트”, “타타르”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16세기 중반을 뜻하는 것만 알았다면, 정답 찾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 ① 금과의 강화.. 일단 금나라가 16세기엔 없었으니 말이 안 됩니다.
- ② 사고전서.. 너무 앞서갔습니다. 18세기 일이죠.
- ③ 쩌흥다오.. 몽골과 베트남과의 관계 얘기네요. 이미 16세기가 아닙니다.
- ④ 류큐.. 가능은 합니다. 류큐가 16세기에는 살아 있었으니까요.
- ⑤ 토번..? 이미 탈락입니다.

이미 이렇게 소거법으로 풀어도, 너무나도 쉽게 4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왜 오답률이 5위인 것일까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념 부족으로 틀린 것 밖에 없습니다.

5	12	41.0	3.00	4	6.3	19.5	9.4	59.1	5.7	보기 >	보기 >	보기 >
6	13	40.0	3.00	3	3.1	14.5	60.4	12.6	9.4	보기 >	보기 >	보기 >
7	11	38.0	2.00	3	10.1	20.8	62.3	4.4	2.5	보기 >	보기 >	보기 >
8	20	37.0	3.00	4	8.2	10.1	8.8	62.9	10.1	보기 >	보기 >	보기 >
9	18	36.0	3.00	4	6.3	6.3	17.0	64.2	6.3	보기 >	보기 >	보기 >
10	14	35.0	2.00	5	12.6	6.9	8.2	7.5	64.8	보기 >	보기 >	보기 >
11	9	33.0	2.00	5	8.8	6.3	8.2	9.4	67.3	보기 >	보기 >	보기 >
12	2	32.0	3.00	1	67.9	11.9	3.8	7.5	8.8	보기 >	보기 >	보기 >
13	5	26.0	2.00	4	3.8	4.4	7.5	74.2	10.1	보기 >	보기 >	보기 >

5~12위의 오답률만 봐도, 그리 간극이 크진 않습니다.

다 1~2%정도씩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부족한 개념이 어딘가 하나에서 표출된다면, 그것이 5번에 조금이나마 몰려있었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하나를 예측해보자면,



이 부분만 보고 청나라랑 혼동이 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것 때문에 틀리셨다면, 개념을 보충하시면서 다시 곱씹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난이도가 아니라, 선지와 지문, 그리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입니다.

선지로 다이내믹한 여행기 하나를 던져줬네요. 표류 여행기..

이러한 느낌의 표류 여행기가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러한 스토리텔링식의 지도 문제를 요즘 평가원이 좋아합니다.

작년 수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의 구성은 평가원이 좋아하는 선지 대다수로 이루어져 있고, 다빈출된 내용들입니다. 아마 기출 문제를 많이 푸셨다면, 어디서 본 놈이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디서 본 놈을 대다수로 선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 <평가원의 눈>

1. 평가원은 **다이나믹한 지문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을 녹여낸다. 그것이 눈으로 보일수록 학생들의 오답률이 낮아진다.**
2. 선지는 **기출에서 반복된 것을 내용적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약간 개조하여 낸다.**

사실 이러한 시기적인 문제는 역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많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패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항상 저렇게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세기별 시기 문제가 등장하니, 이쪽 파트는 흐름을 중심으로 두고 연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답률 4위 문제, 10번을 보도록 합시다.

10. (가) 왕조 시기 동아시아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영의정이 임금께 아뢰었다. “지금 오삼계를 비롯한 남방의 변왕들이 옛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사를 내어 □(가)을/를 도와서 이들을 친다는 것은 의리상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옛 나라가 부흥하여 그 죄를 묻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해명할 말조차 없을 것입니다.”

- 『조선왕조실록』 -

< 보 기 >

ㄱ. 한국 - 연행사가 중국에 파견되었다.  
 ㄴ. 한국 - 삼포(3포) 왜란이 발생하였다.  
 ㄷ. 중국 - 천계령이 해제되었다.  
 ㄹ. 일본 -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번입니다.

오삼계를 보니, 삼번의 난이 떠올리면 정상입니다.

근데 어디에 반기를 드느냐? 그건 청나라겠죠.

따라서 (가)는 청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정말 “생”개념이죠.

**ㄱ. 연행사는 청나라와 관련이 있는 사절단입니다. 참고로, 한국이 명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은 조천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ㄴ. 삼포왜란은 엄격한 통제 때문에 일어난 난입니다. 1510년입니다.

**ㄷ. 천계령. 바로 이것이 청나라식 해금령이죠. 삼번의 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됩니다.**

ㄹ. 기유약조는 1609년이니, 청나라 시기가 아닙니다.

이 또한 개념을 얼마만큼 탄탄히 했냐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문제며, 수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오답률 5위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ㄱ~ㄹ까지의 선지 하나하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문제를 풀지 못한 건 아닐 것입니다.



연행사를 몰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4번 선택률이 18%일까요?  
그건 지문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번을 골랐다는 것은 (가)를 명나라로 착각한 것이니까요.

이 문제는 개념이 약한 분들께, 수능의 기술을 이용해보라고 낸 것 같기도 합니다.

무조건 맞는 것을 찾고, 애매하면 일단 보류.

그렇게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거법 병행하여 확답 찾기.  
그래도 아직 초반 페이스라, 연행사와 삼포왜란의 시기를 모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이 또한 평가원이 자주 사용하는 문제 유형이니, 잘 숙지하도록 합시다. 국가에 대한 설명이나, 그 국가가 존재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물어보는 것은, 그만큼 확답을 내릴 수 있도록 흐름적인 연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연도 하나하나 쪼개서 외우지 마시고, 모든 사건을 이어서 이야기 하듯 주루룩~ 흘러나오게 공부해 보세요.

### <평가원의 눈>

1. 학생들이 주요한 개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2. 문제가 어렵거나 헷갈릴 때, 소거법이나 확답 능력을 사용하면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출제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수능 때까지 헷갈리면, 그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개념"을 탄탄히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 사건의 내용과 그 인과적인 흐름 등을 뜻합니다. 즉, 기본적인 연표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것, 어떠한 응용문제가 나와도 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능에 대한 좋은 대비입니다. 개념 공부에 대한 피드백은 뒤에서 하도록 하고, 17번을 봅시다.

17.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다.
- ② 홍위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③ 남녀평등과 토지 균분을 내세웠다.
- ④ 제1차 아편 전쟁 중에 발생하였다.
- ⑤ 입헌 군주제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오답률 3위의 17번입니다. 하하. 그림이 참 재밌네요.

근데 이 반란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개념 문제 같죠?

“청조 타도”만 봐도, 이미 답은 태평천국 운동이네요.

근데 속단하는 분들 중, 증국번만 보고 갑자기 양무운동을 고르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 선택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물론 이것도 개념 부족이겠죠?)

왜 2번을 이리 많이 골랐어!

그만큼 키워드 개념의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①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은 것은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내가 양무운동이라고 말할 것 같았지!) 물론 양무운동이랑 메이지 유신을 비교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메이지 유신과 가장 빼닮은 것이 변법자강 운동이죠.

② 홍위병은 문화 대혁명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③ 이게 정답입니다. 남녀평등, 토지 균분.. 이게 약간 농민 봉기하면 항상 나오는 용어 아닙니까? 태평천국 운동이 농민 봉기라는 아니지만, 굉장히 내세운 것만큼은 농민 봉기에서 내세우는 거랑 비슷하죠.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④ 이걸 연도를 확실히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1851년에 일어났으나, 아편 전쟁은 1840~1842년이죠?

⑤ 입헌 군주제는, 중국 운동 하면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입헌 군주제를 내세운 동아시아의 운동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이지 유신 같은 거요.

이 또한 "태평천국 운동"을 얼마나 잘 아느냐. 개념 문제였습니다. 알아도, 앎의 강도가 얕으면 모를 수밖에 없죠.

슬슬 근대화 파트로 오니, 연도의 간극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가원은 연도를 갖고 1, 2, 3등급을 가를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건든 연도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며, 수능 때까지 모르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수험생 개인의 지문을 세세히 확인하는 습관과 개념의 깊이입니다. 평가원이 깊이 있는 개념도 다룬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문제가 막 아주 깊이 있는 개념을 다룬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확답 능력... 만약 저걸 잘못 읽고 양무운동인 줄 알았는데 답이 보였다는 것은, 아직 확답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확답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역시 개념 부족입니다. 소거법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현재까지의 오답률 5, 4, 3위의 문제를 틀린 이유는 개념 부족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평가원의 눈>


**1. 평가원이 말하는 개념의 깊이는 사건의 키워드를 뽑아내는 능력의 완수도이다. 키워드를 뽑아내지 못했다면, 개념이 부족한 것이다.**

아까 했던 얘기를 반복하긴 그러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봅시다.

19. (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특집 기획 /////
월간 역사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 미완의 전후 처리와 그것이 남긴 문제점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미국에서 (가) 이/가 체결되었다. 전쟁의 피해국인 한국, 중국 등이 이 조약에서 제외되었고, 소련은 서명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일본과 피해국 간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미완의 전후 처리로 인한 문제점이 어떻게 표면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의 조인식 장면

1. 한·일 기본 조약 -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
2. 중·일 공동 성명 - 합법 정부 승인 및 배상 청구권 포기 문제

<보 기>

ㄱ. 6·25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ㄴ. 일본의 주권 회복을 명시하였다.  
 ㄷ. 신헌법(평화 헌법) 제정에 기여하였다.  
 ㄹ.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번입니다. 오답률 2위. 무려 69%를 자랑합니다.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의 부류는 세 가지입니다.

- A. 아예 몰랐다.
- B. (가)가 극동국제군사재판인줄 알았다.
- C. (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저는 샌강이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인 것은 알았지만, <보기>에 주어진 사건의 시기를 정확히 몰랐다.

대부분 C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5번 선택자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B에 해당되실 수 있다고도 봅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아직 개념이 완벽하다곤 할 수 없으니, 충분히 헛갈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수능에 가면 오답률 5위 안에도 못 듭니다. 지문에서 너무나도 뻔하게 키워드를 모두 던져줬습니다. 역시 앞서 언급한 키워드 찾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네요.

긴말 안하고,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ㄱ. **샌강이 1951년이므로, 6.25전쟁 중에 체결되었습니다.** 참고로 6.25전쟁과 같이 전쟁 시기 사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근대화만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북조 시대, 오닌의 난, 베트남 전쟁 등 동아시아에 등장하는 주된 전쟁/갈등은 시기 문제로 다루기 매우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참에 수능특강이나 교과서를 찾아서 동아시아의 주된 전쟁/갈등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차근차근 다시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ㄴ. **샌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ㄷ. 신헌법(평화 헌법)은 1946년 제정, 1947년 실행된 일본의 법안입니다. 딱 봐도 항복 직후임을 알 수 있으니, 감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정확한 내용은 수능특강이나 교과서를 참고하십시오.

ㄹ.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B에서 언급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도쿄에서 열렸으므로 도쿄 재판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이 개념을 알고 있으셨다면 "미국에서 열린"이라는 키워드만 보고 제꼴어야 합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전쟁 직후 열린 재판이므로 샌강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둘이 관련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평가원의 눈 파트를 생략합니다. 이미 이전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대신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평가원이라고 생각해보시고, 이 문제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으로 넘어갑니다.

16. 밑줄 친 '10년 동안'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의(參議) 오쿠마가 사직한 그 다음날 정부의 중요한 방침이 정해졌다. 정부는 10년 후인 메이지 23년에 국회를 개설하기로 하고, 종래의 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후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국회가 실제 개설되기까지의 그 10년 동안에, 정부는 오히려 보안 조례를 제정하여 치안 방해 등의 명목으로 정치인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 ① 경사 대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
- ② 경인선을 이용하여 제물포로 향하는 관리
- ③ 교육입국 조서의 반포를 전해 듣는 교육자
- ④ 태양력으로 만든 달력을 판매하는 도쿄의 상인
- ⑤ 상하이에서 신보(申報)의 창간을 준비하는 언론인

16번입니다. "10년 동안"의 시기라.. 벌써 웬지 오답률이 높을 것 같은 냄새가 나네요.

만약 메이지 시대의 시작 연도를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는 말도 안되게 쉬워집니다. 참고로 메이지 시대의 시작은 186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메이지 23년"은 1890년이겠죠. 독해력을 발휘해보면, 10년 동안은 1880~1890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추론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공포되고 국회가 실제 개설되기까지"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의 공포가 언제입니까? 1889년입니다. 이듬해는 무엇입니까? 1890년이죠. 1890년에 제국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밑줄 친 "10년 동안"이 1880~189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보이지 않았다면, 역시 연도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10년 동안이 꼭 중요한 시기 사이를 짚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학년도부터 평가원은 주요한 사건을 토대로 주어진 기간을 예상하는 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 전", "10년 동안"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산수 문제?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내면 몇몇 학생들이 속아버리기 때문에 평가원은 당분간 이러한 스타일을 버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문 분석에서 끝내지 않고, 그 분석을 토대로 다시 꼬아서 낸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① 경사대학당은 18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 ② 경인선은 1889년에 첫 개통되었습니다.
- ③ 교육입국 조서는 1895년에 반포되었습니다.
- ④ **일본의 태양력 도입은 1873년이므로, 태양력으로 만든 달력은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평가원이 또다시 보여주는 것은, 닫힌 사건과 열린 사건 구분의 중요성입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⑤ 상하이 신보는 1872년에 창간되었습니다.

선지 4번에서 말씀드린 열린 사건과 닫힌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닫힌 사건"은 말 그대로 닫힌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도다이사 개안식에 참석한 승려

예시 1은 닫힌 사건입니다. 도다이사 개안식에 참석한 승려는 도다이사 개안식에만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선지가 나오면 하나의 연도로 정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예시 2번을 봅시다.

예시 2) 상하이 신보를 읽고 있는 학생

상하이 신보를 "읽고 있는 학생"입니다. 상하이 신보는 1872년에 처음 발간되었지만, 이 신문을 읽고 있는 학생은 1872년의 학생일지, 1873년의 학생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한건, 1872년 이후의 학생이겠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그렇다면, 16번 문제의 선지를 갖고 닫힌 사건인지 열린 사건인지 직접 적어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세요!)

- ① 경사 대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 [ 열린 사건 / 닫힌 사건 ]
- ② 경인선을 이용하여 제물포로 향하는 관리 [ 열린 사건 / 닫힌 사건 ]
- ③ 교육입국 조서의 반포를 전해 듣는 교육자 [ 열린 사건 / 닫힌 사건 ]
- ④ 태양력으로 만든 달력을 판매하는 도쿄의 상인 [ 열린 사건 / 닫힌 사건 ]
- ⑤ 상하이에서 신보의 창간을 준비하는 언론인 [ 열린 사건 / 닫힌 사건 ]

정답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 <평가원의 눈>

**1. 학생들이 열린 사건과 닫힌 사건의 구분할 수 있는지, 추론해 낸 개념을 이용하여 응용문제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총 5개의 문제에 대한 해설과 왜 오답률이 높은지, 그리고 이에 걸맞은 평가원의 눈을 살펴보았습니다.



### 3. 점수별 이후 동아시아사 공부 방향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 점수별 이후 동아시아사 공부 방향입니다.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점수	공부 방향
만점	현재로선 개념에 대한 완성도가 충분하며, 응용문제에도 막힘없이 풀어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 계속해서 감을 유지하도록 하며, 중간중간에 펑크 난 개념이 있는지 예의주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연표(연계교재, 4종 교과서의 공통적인 내용과 동떨어진 연표)를 습득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능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매겨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1~2개 오답	동아시아사 개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나, 응용문제나 기본 개념 몇 군데에 펑크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실수"도 포함됩니다. 1차적 목표로 9월 모의평가를, 최종 목표로 수능을 중점으로 두어 갖고 있는 개념을 충분히 학습하도록 하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고, 응용문제가 등장하였을 때 확답을 내릴 정도의 실력을 갖도록 합시다.
3~4개 오답	노베이스는 아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펑크가 났는지 확실한 점수대입니다. 그것은 실수도 포함이지만, 개념의 펑크일 확률이 큼니다. 수능특강과 교과서를 예의주시하여 공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발각되면 수능노트에 적는 습관을 들입니다. 보통 이 점수대의 분들이 막판에 안 듣던 인강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인강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개념을 복기해 봅시다.
5개 이상 오답	아직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개념을 놓치셨을 확률이 큼니다. 연계교재와 교과서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하도록 합시다. 또한 평가원이 원하는 "동아시아사 1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슨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평가원의 눈을 가져보도록 노력합시다. 문제가 맞았더라도 다시 확인하는 습관과, 선지 하나하나를 해체분석하여 헛갈리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여 수능노트에 적도록 합시다.

제가 만점자부터 5개 이상 오답자까지 공통적으로 짚은 것이 있는데, 눈치 채셨나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념입니다.

동아시아사, 특히 역사 과목은 개념에 충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념 학습은 완벽할수록 좋으며, 연계교재와 교과서가 가장 좋습니다. 중요도를 굳이 적자면, 연계교재>교과서>인강 교재입니다.

왜 제가 연계교재를 교과서보다 앞세우느냐, 그것은 바로 연계교재가 4종 교과서의 공통적인 내용을 추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수를 받았기 때문에, 연계교재의 내용을 평가원이 많이 건드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계교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출간될 수능완성도 꼭 핑크 난 개념을 채우는 비타민같은 존재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현재 동아시아사를 선택하신 수험생 분들 모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언급한 평가원의 눈을 기억하시나요?

### <평가원의 눈 정리>

1. 평가원은 다이내믹한 지문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을 녹여낸다. 그것이 눈으로 보일수록 학생들의 오답률이 낮아진다.
2. 선지는 기출에서 반복된 것을 내용적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약간 개조하여 낸다.
3. 학생들이 주요한 개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4. 문제가 어렵거나 헷갈릴 때, 소거법이나 확답 능력을 사용하면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출제한다.
5. 평가원이 말하는 개념의 깊이는 사건의 키워드를 뽑아내는 능력의 완수도이다. 키워드를 뽑아내지 못했다면, 개념이 부족한 것이다.
6. 학생들이 열린 사건과 닫힌 사건의 구분할 수 있는지, 추론해 낸 개념을 이용하여 응용문제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확인한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평가원의 눈을 의심할 것입니다.

(아니, eneV가 뭔데? ㅋㅋ루뽕뽕)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저 여섯 가지 방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다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보시면, 놀랍게도 모두 일치할 겁니다.

저는 항상 동아시아사 평가원의 눈 10계명을 주장하나, 최신 트렌드에 가장 맞는 것은 저 6개가 전부입니다. 진심입니다. 정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참고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번 자료를 통해 평가원 문제의 특징과 출제 의도, 그리고 오답 분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후 공부 방향을 잡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고,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에서 원하는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6월 모의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신 분들께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도록 합시다. 또한 이번 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신 분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얻어가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필요한 능력을 선택하여 발동시키면, 그것만큼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The logo for 'eneV 드림.' is written in a highly stylized, cursive, and somewhat abstract font. The letters are interconnected and flow together, with a prominent flourish at the end of the 'V'.

eneV 드림.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분석집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 만점자  
2022 eneV Penetration Vol 1. 모의고사 저  
2021 eneV Elastic Final Vol 1. 저  
eneV's 동아시아사 평가원의 눈 10계명 저  
(오픈카톡방) 수능 동아시아사 세계사 지엽정리 질의방 소속

( 열린 사건 / 닫힌 사건 판단 문제 정답 )

열린 사건, 열린 사건, 닫힌 사건, 열린 사건, 열린 사건